

4월 19일(월) / 삼하 16-18

▶ **내용요약** : 사무엘하 16장에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는 다윗과 그를 맞이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브비보셋의 종 시바는 떡과 과일로 다윗을 대접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브비보셋을 모함했다. 또한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그를 저주하고 조롱했다. 다윗의 신하들은 분개했으나 다윗은 그를 내버려두었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17장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다윗이 보낸 후세의 계략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여주고 말았다. 이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 18장에서는 재정비를 마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되었다. 노련한 다윗의 군대에 압살롬은 제압당했고, 다윗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 **질문** : 피난 중인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 왕의 친족은? (16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 다윗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이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4월 22일(목) / 왕상 4-6

▶ **내용요약** :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거느렸던 신하들의 명단, 또한 열 두 명의 지방장관들의 역할,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으며, 솔로몬 또한 엄청난 병거와 마병들을 소유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 삼천 가지, 노래는 천다섯 편을 지었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가르쳤다. 5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에게 사신들을 보낸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레바논 백향목과 일꾼들을 요청했다. 이에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기꺼이 협력하였다. 마침내 6장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은 그 외양에서 뿐 아니라 내부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게 건축, 장식되었다. 그리고 칠 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

▶ **질문** :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만에 솔로몬이 지은 것은? (6장)

▶ **생각하기** : 성전 건축은 출애굽과 관련하여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다.

4월 25일(일) / 왕상 13-15

▶ **내용요약** : 열왕기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분노한 여로보암 왕은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쳐주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후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4월 20일(화) / 삼하 22-24

▶ **내용요약** :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은 이 찬송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자신의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소망했다. 그리고 동시에 사악한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편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많았는데, 그중 요셉밧세벳과 엘르아살, 삼마는 첫 번째 반역에 든 용사들이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편 24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이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심판을 그치셨다.

▶ **질문** :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은? (24장)

▶ **생각하기** :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지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다. 오늘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되자.

4월 23일(금) / 왕상 7-9

▶ **내용요약** :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은 십삼 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다. 또한 놋쇠 대장장이 히람을 통해 성소 밖의 두 놋 기둥을 만들게 한 후,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또한 놋으로 바다와 놋 받침 수레, 물두멍 및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다. 8장에서는 여호와와의 언약제가 성전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설과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전 봉헌식은 십사 일 동안 계속되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구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 그리고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던지시겠다고 하셨다.

▶ **질문** : 성소 밖에 만들어진 두 놋 기둥의 이름은? (7장)

▶ **생각하기** :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일곱 가지 기도는,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 가족과 이웃, 학교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들의 일을 묻도록 아히야에게 보냈다. 그러나 아히야는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선지자의 말과 같이 아비야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유다 왕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평생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15장에서 유다의 왕이 된 아비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키셨다. 이후 유다의 왕이 된 아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4월 21일(수) / 왕상 1-3

▶ **내용요약** :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이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계략을 꾸렸는데, 나단 선지자의 대처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2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교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상기시켰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주의해야 할 인물들과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도 지시하였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사십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솔로몬은 경솔한 언행을 일삼은 아도니야를 포함한 몇몇 반역자들을 처형하거나 추방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쳤을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처형했다. 한편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 **질문** :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3장)

▶ **생각하기** :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자.

4월 24일(토) / 왕상 10-12

▶ **내용요약** :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 왕을 시험하였지만, 솔로몬 왕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했다. 이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건축물들을 보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후 11장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들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또한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나라 중 열 지파를 빼앗아 주시겠다고도 하셨다. 그렇게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사십 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한편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세금과 고역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이스라엘 열 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 **질문** :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던 여왕의 이름은? (10장)

▶ **생각하기** : 솔로몬은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으나, 쾌락과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 순간의 쾌락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며 만족이시다.

행하여 사십일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우상들을 없애고, 아세라 상을 만든 자신의 어머니를 태후의 위에서 폐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이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 **질문** : 아비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던 왕은? (15장)

▶ **생각하기** : 왕의 신앙과 삶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존귀한 자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